

現場密着弘報와 自體能力向上에 總力

韓國原子力文化財團

한 국원자력문화재단은 올해로 발족 2년째를 맞게 됐다. 아직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홍보와 원자력문화의 진흥」이라는 설립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완되어야 할 미비점이 적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재단은 올해 한 해를 「現場密着弘報와 自體能力向上의 해」로 정하고 여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 나갈 생각이다.

홍보방향의 전환

이제까지는 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원자력지식의 보급과 이해증진에 힘을 기울여 왔으나 앞으로는 원전 소재지 등 현장에 보다 중점을 두어 PA 업무를 펴나갈 방침이다.

「현장」하면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곳이 원자력발전소나 연구소 및 관련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현장은 앞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설 후보지는

물론이며 그런 입지가 아니더라도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모든 장소와 기회를 통틀어 현장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단체의 회합이나 청소년캠프가 열리고 있는 청소년회관 및 야외숙영지도 현장이 될 수 있고 많은 군중이 모이는 시장이나 경기장도 홍보의 현장이다.

따라서 現場密着이란 이러한 모든 홍보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함께 호흡하고 더불어 생각하는 가운데 상대를 이해하고 우리의 뜻도 전달되어 원자력의 실상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 받아들일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재단은 이런 방침에 따라 앞으로 힘이 닿는 데까지 모든 홍보현장에 직원을 내보내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나감으로써 일체감을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 또 홍보물도 그 대상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친근감이 가득하도록 내용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

다.

그러나 이런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원자력계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움직이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新規立地에 대한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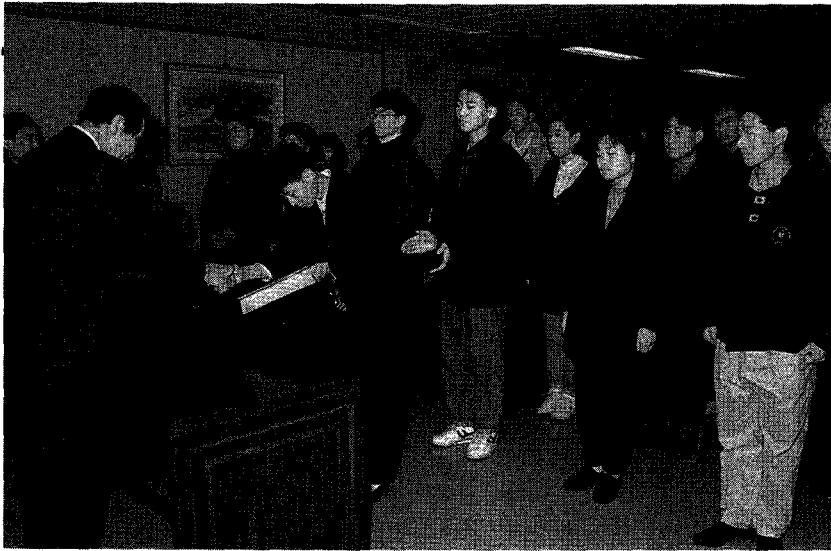
현장밀착홍보의 하나로 이제까지는 4개 원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홍보사업을 펼쳐 왔으나 올해부터는 원자력발전소와 폐기물처분장이 들어설 신규입지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해외원전시찰은 원자력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앞으로는 기존 발전소보다 신규후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시찰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 시찰대상국도 이제까지는 日本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럽과 미주지역으로 대상을 넓혀 원전 및 폐기물처분장을 시찰하고 그곳 주민과의 접촉을 통하여 원자력산업의 실상과 지역과의 공생공영 관계를 이해시켜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각 지역의 지방의회 지도자 및 지역언론사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인사 중에서 홍보거점을 확보하여 유기적 관계를 유지,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여론의 수렴 및 지역 PA의 전위로 활용코자 한다.

외곽지원단체 조직육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지난해 영광원자력문화진흥회의 결성을 측면



〈그림 1〉 전국고교생작문모집 입상자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하는 김선창 재단이사장

지원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최초로 자생적 민간조직인 친원전단체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앞으로 이 단체는 원전과 지역주민간에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동조하는 민간조직으로 확대돼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사업으로는 원전종사자를 포함한 회원간의 상호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를 통하여 원전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늘리며 지역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 영광원전회의 조직과 운영경험을 살려 고리와 월성 및 울진지역에도 유사한 단체가 나오도록 지원코자 하며 이들 지방조직이 완성되는대로 전국연합조직을 통하여 상호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그동안 원전을 시찰했던 각계 인사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연수에 참가했던 과학교사들의 친목모임을 지원함으로써 원자력계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이들의 수강내용 및 연구결과가 널리 전파되어 원자력

PA에 도움을 얻도록 할 계획이다.

차세대교육 강화

성장기에 터득한 지식은 평생을 통하여 사고와 가치관의 정립에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 재단은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교육계의 협조를 얻어 추진하고 있는 교과과정 개편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교사용 원자력교육 지침서를 제작, 배포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에서 원자력교육이 보다 폭넓게 다루어지도록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교사에 대한 해외 연수와 국내 연수기회를 넓히고 교육용 비디오와 패드 등 교재의 제작, 보급도 검토하고 있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도 늘려 학생 글짓기대회, 사생대회 등을 개최하고 과학영재반 학생 및 원자력전공 대학생의 원전시찰 등 학생층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문화사업으로 여성문화강좌의 개설, 지역문화행사 지원, TV

나 유선방송의 효과적 이용 등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원자력을 이해하고 친숙해지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 직원의 전문화

앞에 든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담당하는 직원의 자질을 높이고 자체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재단은 창립한지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은 구성원들의 경험과 능력 면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에는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자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위탁교육을 통하여 PA 전문인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예상되고 있어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큰 관심사이다. 우리 원자력계는 이를 위해 자체역량을 키우고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결속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